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77.91	↑ 코스닥	781.98
	(-1.81)		(+0.81)
↓ 금리 (국고채 9년)	3.400	↑ 환율	1313.00
	(-0.073)		(+9.30)

[경제종합]
新 EU 배터리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공익법인·사립대학 등 비영리부문 ‘깜깜이 회계’ 여전

회계개혁 사각지대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 대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도
사학기관 부정적발 등 개선 안돼
실질적인 감사시간 부족 지적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新)외
부감사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4
년여가 흘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
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어느정도 확보
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비영리
부문은 여전히 사회적 감시망을 벗어
난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도입)
2021년	지방보조사업자 외부감사의무화 (지자체 보조금관리법)
2022년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립학교법)
2024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부감사대상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16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서 따르
면 지난해부터 사립대학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을 대상으
로 외부감사 개선을 위한 주기적 감사
인 지정제(4+2)가 도입됐다. 4년간 감
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2년
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

다.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기업이 먼저 ‘6+3’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고, 비영리부문
에도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했다. 하지
만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
조합 전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사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 휘문
고의 사립학교 회계 부정 논란, 아파
트 관리비 횡령 사건 등 각종 비영리법
인의 내부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
의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비영리부문
의 회계처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
성이 한층 더 대두됐다”며 “비영리법
인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공시같은 장치가 있는 일
반기업보다 오히려 회계감사가 더 중
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가 실시된 사학기관의 경우 교육부 감
사에서 부정회계처리가 적발되는 등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질적인 회계감
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
령령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르면 사학기관들은 회계기간 종
료 후 3월 이내 결산을 마쳐야 하는
데, 시행규칙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 결산
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회계기간 종
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결산을
심의·확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질적
인 회계감사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고 꼬집었다.

<3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尹 “서틀외교 적극 환영… 새 시대 함께 노력”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
를 방문한 이후 4년 만의 정상 방문이
다. 또한, 양자 정상외교 차원의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서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교토를 방
문한 이후 12년 만이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

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로 관저 내부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정
상회담을 시작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
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자유·인권·법치
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
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
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의 기반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
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 장

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
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
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
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
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
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
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이 말
한 양국 서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 환
영한다”며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정부 전략산업서 쪽 빠진 SW 삼성 등 인력 육성 ‘각자도생’

기업 경쟁력 좌우 SW 역량 강화
현대차, 세 자릿수 경력직 채용
중후장대 제조기업들 판교 이동
IT업계 모여 인력을 유치 유리해

산업계가 4차산업혁명으로 소프트웨
어(SW) 역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하
지만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등 첨단 산
업 육성은 적극적인 반면 소프트웨어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
난 15일부터 세자릿수 규모 ICT 본부
경력직 채용을 시작했다. 채용 분야는
13개 직무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를 비롯해 대부분 IT 부문에 집중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미
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역량으로 보
고 있다. 하드웨어 기술력이 상향평준
화 된 데다가, 자율주행이 확대하고 커
넥티드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비중이 높아지는 등 소프트웨어 필요성
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완성차뿐 아니다. 삼성중공업과 두
산그룹에 이어 현대제철과 HD현대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 제조 분야 기업들
은 최근 앞다퉈 판교로 본사를 옮겼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협력이 확대되는
IT 업계와 거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판
교에 집중된 IT 인력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자 업계는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국내를 벗어나

전세계에 R&D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인력 확보에 힘을 쏟을 정도. 이재용 회
장과 구광모 회장 등 총수들까지도 해
외 출장길에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만
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학기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
로 다양한 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
나 반도체 등 제조업 지원과 비교해서
는 그 규모가 부족한 지적이다. 산업
계 전반에 소프트웨어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은 뒤쳐진 상
태이다. 정부는 여전히 제조업을 중심
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산학 박사 1호인 문송천 카이
스트 명예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 전략에 소프트웨어 분야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소프트웨어는
제조업과는 달리 재고가 없는 순수 두
뇌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이지만, 제
대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는 것.

실제로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삼성전자
가 SSATF로 연간 1000명 수준 전문가
를 키우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
고 있다. LG도 계열사별로 다양한 개발
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현대
차도 소프트어 부트캠프로 동참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
기 어려워 해외 R&D 거점을 확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재용 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개딸 비방 게시물에 “즉각 삭
제 강력히 촉구”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이낙연 연구제명·박지현 탈당 청
원 거부… “동지 공격 중단해야”

▲ 여, 北 미사일 도발에 “미친개엔 몽둥
이 찜질이 답”
▲ 여당 “‘자주통일민중전위’ 총격적…
대공수사권 이전 백지화해야”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사진 뉴시스
▲ 이준석 “인터넷에 통신사 톨게이트?
과도한 접속료 부과 안돼”

日, 반도체 등 3대 수출규제 해제… 韓은 WTO 제소 취하

산업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특별일반포괄허가제’ 적용하고
국가카테고리 조치 원상회복 논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품목 수출규제가 3년8개월만에 해제된다. 한국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양국은 또 화이트리스트(우대국) 원상 회복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했던 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16일 전격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일본 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 운용 변경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2019년 7월 이전처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그에 따른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수출규제 보복에 나섰다.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우리

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무역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다.

4년여 간 지속되던 양국간 무역분쟁은 지난 6일 우리 외교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원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양국 외교당국 발표에 뒤이어 우리나라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상 등 수출 관계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 양자 관계를 복원시키는 큰 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통상무역 분야에서도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바리스타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매출 1조 스타팍리스 10곳 육성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지난달 반도체 수출 42.5% 급감
설계-제조-후공정 생태계 강화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시 2배 지원

정부가 매출 1조원 규모 팍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 확대가 유력한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조 2000억원 투자하고, 우리 강점인 파운드리(반도체 제작 전문 회사)를 활용한 설계와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최근 반도체 수출과 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 2월 기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2.5% 급감한 상황이다.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의 약점인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한다.

특히,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반도체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국내 팍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발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팍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원을 투자한다.

유망 팍리스 성장을 촉진해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 팍리스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경련-日경단련, 20억 파트너십기금 조성

“미래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등
공통과제 해결위한 사업 실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한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은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전경련과 경단련은 한일경제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 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각 한일·일한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이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일한 미래파트너십 선언’을 하고 있다. /전경련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트너십 기금은 한일 양국이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방안 연구,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시와 인재 교류 촉진 등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관계단체들과 연계하면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도 추진한다.

양측은 서로를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회적 과제, 무역과 과학 기술에 입각한 국가 지향 등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참가 기업은 아직 미정이다. 일단 양측에서 각각 10억원을 출연,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향하며 추후 과제와 사업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中企중앙회, 韓·日 중소기업 경제협력 강화

김기문 회장, 비즈니스 테이블 참석
연내 일본서 7개 전시회 개최 계획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과 일본 양국간 중소기업 분야 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사진)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기업 인간 소통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업종별 중소기업인들로 꾸린 중소기업 대



표단도 파견한다. 이들은 니카이 도시히로(자유민주당) 중의원과 일본 중소기업청과 간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 간 인재·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니카이 의원은 자유민주당 13선 중의원으로 일본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한·일 중소기업 협력정책 간담회(2009년) ▲아시아 중소기업 대회(2013년) ▲한·일 중소기업 정책포럼(2014년)을 개최하고, 2019

년에도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에 중소기업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이른 만큼 민간 차원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일본에서 7번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김철우 국제통상실장은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사업들을 실시해 이번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韓 회계투명성 63개국 중 53위… ‘체질개선’ 선택 아닌 필수

회계개혁 현주소는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일반 기업에 이어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비영리부문에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은 총 63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로 최하위권 성적표를 이어갔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한 신외감법 시행후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급등하기도 했으나, 오스탐입플란트, 우리은행 등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직까지 중화위권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대형 횡령 사건에도 투명성 제자리
尹정부 개혁방침, 노조 반발 ‘제동’
비영리부문 관련 법안 국회 계류
금융당국 “상반기 내 개선안 마련”

◆“사립대학, 공익법인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필요해”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사립대학과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외에도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감사시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립대학 표본 737개를 분석한 결과 감사투입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감사보수 등이 증가할수록 오류수정금액이 줄고 오류수정 빈도 역시 줄어든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서도 감사투입 노력이 증가하면 오류수정금액의 크기가 줄어들고 오류수정의 빈도가 줄어든다”며 “오류수정금액이나 빈도가 재무보고 품질의 대용치이므로 이번 연구 결과는 사립대학의 경우 감사투입 노력이 증가하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부문 회계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와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2020년, 2021년 비영리부문에서도 영리부문처럼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감사시간 부족 문제를 비영리부문에서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내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노조가 의무적으로 회계장부를 공시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분기까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고용부의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자문단장을 맡은 김경울 회계사는 “장부 열람권을 통해 회계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시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공익법인, 아파트 협동조합 등 다른 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노조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논란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논란은 여전하다.

회계업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이후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이 늘었으며, 감사 품질 역시 향상됐다고 밝힌 반면, 재계는 외부감사 보수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회계학회회의 ‘상장기업 감사보수 변화와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총감사보수 평균은 지난 2020년 2억236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해 감사시간이 늘면서 직전 연도 대비 24% 상승했다.

하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거의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간당 감사보수는 9만8000원 수준으로 신외감법 시행 이전인 2006년(9만7000원)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논문을 작성한 안혜진·한승엽 홍익대 경영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15년간 시간당 감사보수는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 분석대상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31%)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0년 시간당 감사보수는 12만8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회계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법안을 완화하는 건 회계개혁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감사 보수 증가를 이유로 불만이 커졌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외부감사를 강화함에도 일부 상장사들은 내부통제가 안되고 횡령 사건이 터지는 데, 제도를 완화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추진은 사실상 스톱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개선방안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노조, ‘회계자료 내지 제출’ 월권 반발

>> 1면 ‘공익법인·사립대학 등’서 계속

노동조합의 경우 윤석열 정부 이후 회계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회계자료 보고하라며 공문을 보냈다. 회계자료 제출 노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그러나 86곳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

으며 “회계자료의 내지 제출 요구는 월권”이라며 맞서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KB금융그룹
국민의 편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 우리, 모두가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KB국민
WE:SH 카드
My WE:SH / Our WE:SH / WE:SH ALL

time to
WE:SH

■ KB국민 WE:SH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국민 Our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청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 - C2b - 01317호 (2023.02.17 ~ 2024.02.16)

KB국민카드

폐배터리 용도·수요 확대… 재활용규제 풀어 ‘파이’ 키운다

新 EU배터리 규제현황·대응전략
코발트 재활용률 16→26% 확대
리튬 6→12%, 니켈 6→15%로
EU, 회수율 확대 CRMA 곧 발표
성일하이텍
“9개 리사이클링파크 등 보유
자재 확보 위해 글로벌체인 구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CRMA)’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배터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폐배터리의 용도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 CRMA 앞세워 배터리 재활용 중요시하는 EU

조르지오 코르베타 유럽 배터리 제조



조르지오 코르베타 유럽 배터리 제조연합, 유럽연합(EU) 담당 사무국장인 16일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원격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EUROBAT), 유럽연합(EU) 담당 사무국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신(新) EU 배터리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배터리에서 코발트 재활용 비중은 2031년 16%에서 2046년 26%로 늘어날 것”이며 “리튬은 6%에서 12%

로, 니켈은 6%에서 15%로 비중으로 재활용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곧 CRMA 초안을 발표한다. 이 법의 골자는 EU가 추진하는 CRMA는 역내에서 최소 10% 이상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원자재 회수율을 높이는 것. 재활용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규제’로 인해 더 이



인터배터리 2023에 참여한 성일하이텍 부스에 관람객들이 몰려있다. /허정윤 기자

목을 끌고 있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2031년 배터리 소재 중 재활용 의무 물질과 비율은 85%(납), 16%(코발트), 6%(리튬), 니켈(6%) 등 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범위는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며 “배터리 생산 업체가 회수 및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실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방법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방법 연구 ▲배터리 생산자들의 책임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EU의 원자재 전략은 ‘로컬화’된 배터리 원자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배터리 및 배터리 금속 가공은 하나의 시장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장 점유 서두르는 K-재활용 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도를 위해 한국 기업들도 앞장서고 있다. 성일하이텍 영업권 상무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어떤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든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성일하이텍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다. 성일하이텍은 국내 배터리 3사와 협력하며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성일하이텍은 리튬 회수와 전처리 특허도 23개(2022년 기준)를 가지고 있다.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이 유일하다. 글로벌 단위로는 중국 재활용 업체 3곳과 유럽의 유미코아(Umicore)가 갖추고 있다.

염 상무는 “성일하이텍은 작년 기준 9개의 리사이클링 파크(전처리)와 2개의 하이드로 센터(후처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리사이클링 제품 다변화를 시도하고 원활한 자재확보를 위해 글로벌 체인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인도 등에서 글로벌 리사이클링 파크 설립을 시작해 공급처를 분산시키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차전지 재활용 업체 아이에스티엠씨(ISTMC)는 전국 최대규모의 폐차 네트워크를 지닌 ‘인선모터스’와 경기도 화성에 2500평 규모의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는 ‘아이에스비엠 솔루션’과 리사이클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이에스티엠씨는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철금속 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폐리튬 이온 이차전지 재활용을 시작해 이차전지 스크랩으로부터 탄산리튬과 전구체복합액(니켈·코발트·망간 혼합용액)을 양산하며 국내 희유금속 리사이클링 산업을 이끌어왔다. 양극재와 전구체의 폐슬러지를 포함한 종합 이차전지 폐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 밖에도 제련기술로 완성한 고효율 습식 리사이클 공정인 가능한 고려아연 등이 배터리 재활용에 뛰어들고 준비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www.hanwhalife.com

“은행 수익개선, 금리인상 기반 실질 성과따라 성과급 쥐야”

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작년 5대 시중은행 이자이익 37조
2020년 27조 대비 36.7% 급증

경기 불확실성 대비 단·장기적 성과
평가하고, 지급수단 다변화 해야

“최근 은행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 노력보다는 대출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36조9388억원으로 2020년(27조209억원)과 비교해 3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9조9186억원에서 10조7991억원으로 8.8% 늘었다. 고정급은 5조1718억원에서 5조4044억원

으로 4.4%, 성과급은 1조4747억원에서 1조9595억원으로 32.8% 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을 이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상의 금융에서 일생의 금융으로

제2의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용기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힘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용기의
무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與 ‘근로시간 개편안’ 수습나서… “노동자 신뢰부터 얻을 것”

‘주 최대 69시간’ 논란

토론회 갖고 MZ세대 등 의견 수렴
노조 측 개편안 실효성 등 지적
임이자 의원 “현장 기반 정책 보완”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주 최대 69시간’ 논란 확산에 국민의힘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MZ세대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고, 해명도 했다. 당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 반영할 부분은 챙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 핵심은 ▲노동자·사용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자 건강·휴식권 보장 ▲포괄임금제로 묶인 ‘공짜 야근’ 해소 등이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제시된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해 과로사 문제나 연차 사용 등이 제대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16일 국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갖고, 직접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이나 제도상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 인사로 참석한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조합협의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기존 주 52시간을 넘긴 추가 근무 요구는 노동자 측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유 의장은 “취지에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공짜 야근은 이를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며, 연장 근로를 유연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편안에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단, 현행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편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조기현 (썬) 유엔파인 대표도 “이번 개편안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 합의도 반영돼 지난 정부보다 진보된 제도이지만, 근로 시간과 관련 (초과 시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연구단체 스페셜스페이스 대표인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업이나 기술 변화, 감염병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응책으로 선택권은 중요하다. 다

만 현장 노동자에게 있어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장에서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며 “노사 자율 합의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 구조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확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지적에 임이자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많이 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사업하는 기업 대표에게서도 얘기를 들었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충분히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野 ‘대정부투쟁’ 본격화… “쌍특검 추진, 학폭외교 심판”

민주당, 정의당 접촉… 총력전 양상
처리절차·수사범위·인사추진권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학교폭력-굴욕외교’라는 세 갈래 전선을 만들어 대정부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각 사안마다 지도부가 직접 나서거나 자체 조사단이나 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각각 특별검사(특검)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나 이를 우회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의당과 접촉을 이어오고 있었다. 다만, 처리 절차·수사범위·인사추진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1일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장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안에 대해 “정의당에서 지속적으로 법사

위에서 논의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의당도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진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인사 검증, 학폭 재판 관련 추가 의혹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정순진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8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진학한 서울대를 방문한 데 이어, 17일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가해가 발생한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는다. 진상조사단은 학교 측이 학폭 발생 이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민사고에 이어 경찰청(20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강제전학한 반포고등학교(21일),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22일)도 방문한다.

민주당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인행을 문제 삼고 있다. 대책위는 16일 국회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중 강제징용 정부 배상안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표현으로 일본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출범한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첫 결의문을 내고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시마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산 수산물 규제 해제 요청을 절대 받아들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기현 “당내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만들 것”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현장 목소리 듣고 해결책 제시 역할”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경제 법안 신속 처리 차원에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민생 관련 현안을 챙기는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당내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공감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생 관련 시급한 경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반도체를 포함한 ICT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끝내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본부 발족

이정미 대표 “총력을 다해 제도화 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을 다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을 다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를 응원합니다

174m만큼 높아진 나눔

LG유플러스가 지난 3년 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 태블릿PC가 2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한데 모으면 성산일출봉의 높이인
174m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의 희망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LGU+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비대면 교육_ 전국 교육청과 아동복지시설 및 최전방 복무 군자녀 가정에 지원
어린이 재활치료_ '아이들나라'와 '윌라오디오북'이 탑재된 태블릿을 재활전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기부
어르신 치매 예방_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

국내 은행 순이익 18.5조 ‘역대 최고’… 이자이익만 56조

금감원 ‘2022년 은행 영업실적’

고금리에 이자이익 22% 급증
非이자이익은 52%나 줄어들어
불확실성 대비 충당금 적립 확대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 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영업실적을 취합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작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21.6%) 급증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2021년 (A)						2022년 ^P (B)						증감 (B-A)	증감률
		1Q	2Q	3Q	4Q			1Q	2Q	3Q	4Q ^P			
국내은행	16,9	5.6	5.4	4.8	1.2	18.5	5.6	4.2	4.3	4.4	1.6	9.6		
일반은행	10.1	2.9	3.2	3.2	0.8	13.4	3.6	3.2	3.7	2.9	3.3	32.9		
시중은행	8.6	2.5	2.7	2.7	0.7	11.7	3.1	2.8	3.1	2.6	3.1	36.7		
지방은행	1.3	0.3	0.4	0.4	0.1	1.6	0.4	0.4	0.5	0.3	0.3	18.7		
인터넷은행	0.18	0.03	0.07	0.07	0.00	0.10	0.03	0.02	0.06	0.00	△0.08	△42.0		
특수은행	6.8	2.7	2.2	1.6	0.3	5.1	2.0	1.0	0.6	1.5	△1.7	△24.9		

순이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자산, 즉 평균잔액은 2021년 275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041조7000억원으로 10.3% 늘었다. 순이자마진(NIM) 역시 같은 기간 1.45%에서 1.62%로 0.17%포인트(p) 확대되면서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전년(7조원) 대비 52.0%(3조6000억원)나 감소한 것이다.

유가증권관련 손익 1조9000억원, 기타영업이익 2조 5000억원, 수수료이익 3000억원 등이 감소했고 외환·파생관련 이익은 1조원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HMM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1조 8000억원의 관련 이익이 전년도에 반영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비이자이익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단위 : 조원, %)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확대했다. 대손비용이 6조3000억원으로 53.7% 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로 0.01%p 하락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7.41%로 0.44%p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 3000억원이다. 급여 등 인건비는 2021년 씨티·SC 등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지만, 임차료 등 물건

비는 1조원 늘어났다.

대손비용은 6조 3000억원으로 전년(4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2분기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이 개선되면서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 9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국 긴축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은행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자본 비율이 취약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하나銀, RPA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

(로봇 자동화)

인지영역 자동화 등 DX 확대
‘1부서 1봇’ 프로젝트도 시행

하나은행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로봇 자동화(RPA)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은 직원이 처리하던 반복적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챗봇, 광학문자인식(OCR) 등과 연계한 인지 영역 자동화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로봇 자동화 프로



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문 개발자가 아닌 직원들도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현업 부서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는 ‘1부서 1

봇’ 프로젝트(사진)도 시행중이다.

특히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실무 적용 사례와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직원들의 집단지성과 부서 간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 되도록 유도했다.

하나은행 업무혁신부 관계자는 “RPA를 활용해 연간 약 150만 시간의 직원 업무가 경감됐고 유류 역량은 손넉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었다”며 “하나은행은 인공지능,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초자동화 시스템 적용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페퍼저축銀, 지역 대학생 위해 2.5억 장학금

페퍼저축은행은 AI 페퍼스 배구단 연고지인 호남 지역 대학생 100명에게 2억 5000만원의 ‘제3회 페퍼저축은행&AI 페퍼스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동연 AI 페퍼스 단장(오른쪽 첫번째)과 장학생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주금공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1.5조 공급, 사업장도 보증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나 건설사는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해 위험을 분산한다. ABCP 만기는 통상 3개월인데 최근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ABCP 차환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사 등이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공급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했고 분양 후 사업장도 보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증권사 등이 이전 대출에서 부담한 신용보강 조건은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우리은행·우리카드

세계 최초 비대면 봉헌 ‘가톨릭페이’ 정식 출시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천주교 비대면 봉헌 서비스인 ‘가톨릭페이’를 정식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톨릭페이’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봉헌을 모바일 현금서비스로 구현했고 천주교 공식 모바일 앱(‘가톨릭 하상’)과 연동해 신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가톨릭페이’는 기존 ‘우리페이’를 화이트라벨링(제휴를 통해 타사 앱에 당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한 ‘통합결제 플랫폼’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간편 봉헌과 함께 신자 간 간편 송금도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자는 실시간으로 본인의 봉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 봉헌으로 받지 못했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가톨릭페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승용 기자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IBK창공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네트워킹’에 참석한 IBK기업은행 관계자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기업銀 ‘IBK창공 투자 네트워킹’ 행사

투자유치·협력 등 만남의장 확대

IBK기업은행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IBK창공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에서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 육성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투자 유치와 외부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이력, ‘IBK창공’ 프로그램 참여 적극성 등을 반영해 50여개사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초청됐으며 기업은행 창공 운영진, IBK금융그룹 투자담당자 등도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행사에 초청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IBK창공’의 투자자 문역으로 위촉해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IBK창공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투자기업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銀-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 맞손

컨설팅·구조조정 등 토탈 솔루션

신한은행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IB·기업승계 등 프리미엄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딜로이트 안진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및 고자산 고객 대상 ▲기업 컨설팅 ▲M

&A 및 투자자문 ▲구조조정 ▲세무 ▲개인자산관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창업, 성장, 성숙, 재도약 등 기업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재무자문을 통해 전략 컨설팅, 신사업 발굴, 사업재편,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모빌리티 혁명 시대… 공간제약 뛰어넘는 융·복합기술 공유

‘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가담회

전세계 10개국 160여개사 참가
새 이동수단 미래 청사진 제시
다양한 제품·기술, 콘텐츠 부각
컨퍼런스·포럼·시승 등 다채

“서울모빌리티쇼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하드웨어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모빌리티, 모빌리티서비스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출품되며, 이를 통해 융·복합 전시회로 탈바꿈한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모빌리티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동화 전환,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릴 만큼 산업의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전시회

인 ‘2023 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30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총 전시 규모는 5만 3541제곱미터(㎡)로, 지난 2021년 행사(2만6310㎡)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됐다. 전 세계 10개국 16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강 위원장은 “특히 산업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완성차를 넘어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산업군이 진화되고 있다”며 “과거 모터쇼가 B2C 모터쇼였다면, 모빌리티쇼는 B2B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이 만나 기술을 교류,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하나의 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2023서울모빌리티쇼의 주요 특징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 부각 ▲미래첨단기술로 모빌리티 산업 청사진 제시 ▲모빌리티 산업 견인 및 B2B 지원 강화 ▲시승행사 및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다이나믹한 체험을 꼽았다.

우선 모빌리티 콘텐츠와 관련해 하드

웨어(Hardware) 부문은 ▲뉴모빌리티 ▲오토 메이커 ▲오토 파츠로 분류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틱스 등 뉴모빌리티 분야에서는 SK텔레콤, V-Space 등 총 9개사가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선보인다.

오토 메이커 부문은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12개 완성차 브랜드, 친환경차 8개사, 이륜차 3개사 등 총 23개사가 참여한다.

오토 파츠 부분에서는 글로벌 부품 공급 및 정비 서비스 에이씨텔코(ACDelco) 등 19개사가 참가한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자율주행, 융합기술, 인큐베이팅으로 분류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현대모비스, 오토엘 등 4개사가 참가하고, 융합기술 분야 4개사, 모빌리티 인큐베이팅 분야 등 총 17개사가 부스를 꾸린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문에는 플랫폼, 모빌리티 케어, 모빌리티 라이프를 분류했다. 플랫폼에는 차봇 모빌리티, 케타버스, 인벤티스 등 9개사, 모빌리티 케어 분야 4개사, 모빌리티 라이프 분야 12개사가 참가하여 모빌리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조직위는 미래첨단기술로 모빌리티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전시기간 중 기술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한다.

또 조직위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항공 모빌리티 특별관을 구성한다. 특별관에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한 총 5개 기업이 참여해 UAM, 개인형 항공기(PAV), 고정밀 GPS 단말기 등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모빌리티 산업을 견인하고 B2B 지원도 강화하기 위한 장도 마련했다. 2021년 처음 시작한 ‘서울모빌리티어워드’도 참가대상과 범위를 넓혀 진행된다. 올해는 ▲모빌리티 하드웨어(승·상용차, UAM, 퍼스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소프트웨어(MaaS, Saas 등 모빌리티 무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 테크부품, 액세서리 등 제품의 신기술)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예선을 거쳐 전시 기간 내 최종 결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주), 美 ‘투로’ 지분매각… 동남아 투자 확대

5년만에 원금 두배이상 수익 달성 ‘쏘카 말레이시아’ 급성장 기대감 동남아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육성

투자전문회사 SK(주)가 모빌리티 선진 시장인 미국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동남아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

SK(주)는 개인간(P2P)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 ‘투로(Turo)’ 보유 지분 전량을 6750만 달러(약 881억원)에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유 지분을 기존 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내 거래 종결 예정이다. 이로써 SK(주)는 지난 2017년 투로에 투자한 지 5년여 만에 투자 원금 3,500만 달러(당시 약 398억원) 대비 두 배를 넘는 약 221% 수익률(원화기준)을 달성했다.

투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P2P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빌려쓰는 B2C(Business to Customer) 차량공유 모델과 달리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렌터카 대비 낮은 가격과 인수·반납 등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SK(주)는 빠르게 성장하는 모빌리티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있는 방사 지역의방사소 평센터(BSC)에서 쏘카를 이용중인 고객 /SK(주)

플랫폼 시장에 주목해 2015년 한국 쏘카에 약 1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그랩(Grab), 투로 등 글로벌 각 지역별 1위 차량공유 및 모빌리티 기술 영역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왔다.

SK(주)는 글로벌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와 동남아 시장에서 차량공유, 전기차 충전 플랫폼, 자율주행 솔루션 등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K(주)가 최대주주인 ‘쏘카(SOCAR) 말레이시아’를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SK(주)는 지난 2017년 한국 ‘쏘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 ‘쏘카 말레이시아’를 설립하며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 후, 2020년 쏘카 말레이시아 지분을 추가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쏘카 말레이시아는 회원수 190만명을 돌파하며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확보한 말레이시아 1위 차량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월 평균 5천 명 수준이던 사용자 수가 최근 월 2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SK(주)는 기존 B2C 차량공유 사업 모델 ‘쏘카’에 미국형 개인간 차량공유 모델 ‘트레보(Trevo)’와 한국형 대리기사 모델 ‘버디 드라이버(Buddy Driver)’를 합쳐 쏘카 말레이시아를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웠다.

차별적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쏘카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0년 3억명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East Bridge Partners)와 말레이시아 다국적 기업 사임다비(Sime Darby) 두 곳으로부터 6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최빛나 기자 vitna@

세서에 4세대 저장장치에 성능을 40%, 소비전력을 20% 줄인 LPDDR5까지 탑재했다.

디스플레이도 개선했다. 풀HD 해상도 OLED로 디지털영화협회(DCI) 표준 색 영역 DCI-P3를 100% 충족하는 풍부한 색 표현력을 자랑한다. ‘눈부심 방지&저반사’ 코팅으로 빛반사와 눈부심도 없다.

/김재웅 기자



삼성전자는 사운드바로도 글로벌 1위를 지켰다.

‘TV왕’ 삼성전자, 사운드바도 9년 연속 1위

17년 연속 TV 시장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사운드바에서도 9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16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점유율이 금액 기준 20.2%, 수량 기준 18.4%로 1위였다.

2014년 이후 9년 동안 기록을 이어간 것. 지난해 출시한 Q시리즈 등이 판매를 이끌었다. 높은 음향은 물론 디자인, 특히 사용 공간에 최적화하는 맞춤형 사운드 경험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

15.6형 대화면에도 더 가벼워진 LG그램

두께 10.9mm, 무게 990g 불과

10년차를 맞은 LG그램이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얇고 가벼워졌다. LG전자는 LG그램 신제품이 가장 얇은 10.9mm 두께를 구현했다고 16

일 밝혔다.

15.6형 대화면으로도 종전보다 4.4mm나 적은 숫자. 그러면서도 무게는 990g에 불과하다. 마그네슘 합금을 적용해 내구성도 높다.

성능도 충분하다. 인텔 13세대 프로

더 진화한 ‘GPT-4’… 美 변호사 시험 상위 10% 성적 기록

4개월 만에 업그레이드 출시
그림·영상 넣어도 답변 내놔
인간·컴퓨터 언어까지 구사
한국어 정확도 77%까지 개선
거짓 텍스트 생성 등 과제 여전

오픈AI가 새롭게 출시한 ‘GPT-4’는 냉장고 안의 재료 사진을 입력하니 바로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몇 개를 보여줬다. 이미지나 영상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그에 걸맞는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각종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람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어 성능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1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PT-4는 챗GPT에 적용됐던 ‘GPT-3.5’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4개월 만에 출시돼 놀라운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손글씨, 사진 및 영상 인식해
GPT-4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물론 영상까지 입력할 수 있어, 문장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림을 넣어도 답변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화면.

/뉴시스

을 내놓는다.

그레그 브록맨 오픈AI 시장은 GPT-4의 새로운 활용법을 보여줬다. 우선 시연을 통해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영상을 6개 문단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여줬다. 또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찍어 입력하니 AI는 냉장고 속 재료를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를 소개했다.

오픈AI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진, 영상이 무엇을 파는 지 파악하는 AI 기술은 있었지만, GPT-4는 인간은 물론 컴퓨터의 언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며 원

하는 답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GPT-4는 또 약간의 유머감각도 탑재했다고 평가된다. 가수 마돈나에 대해 새로운 농담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자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GPT-4는 “마돈나가 기하학을 배우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다양한 각도로 포즈를 취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라고 답변했다. GPT-3.5가 “마돈나가 은행에 간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돈을 빌리려고”라고 답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능이 ‘경종’ 올라

선 것이다.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 차지

각종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을 보여준 것도 놀라운 성과다. GPT-3.5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상위 60% 수준에 그쳤는데 놀랄 정도로 성과 개선을 보여줬다.

오픈AI는 미국 내 객관식 시험 40개를 GPT-4와 GPT-3.5에 제공하고 시험을 치게 했다. GPT-4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에서 상위 10%를 기록했다. 또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GPT-4는 400점 만점에 298점을 기록하며 상위 10%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읽기, 쓰기 시험과 수학 시험에서도 GPT-4는 백분위 93과 89를 기록해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GPT-4는 한국어 정확도가 무려 77%까지 개선됐다. 이는 GPT-3.5의 영어 이해도인 70%와 유사한 수준이다. GPT-4는 무려 26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또 GPT-4의 영어에 대한 정확도는 85.5로, GPT-3.5가 70.1%를 기록한 것에 비해 15.4%가 높았다.

답변 채택률도 높아졌다. 오픈AI의

명령어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 5214개 중 3660개인 70.2%가 GPT-4의 답변을 채택했다.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여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NYT는 “시스템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해하지 못 해 완전히 거짓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었다”며 “최신 암 연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요청하니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주소를 생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GPT-4는 미래 전망을 제시하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독창적인 추론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전망을 종합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은정 업스테이지 최고과학책임자(CSO는 “GPT-4는 엄청난 혁신으로 놀라운 문제풀이 능력을 보여주고, 많은 언어적, 수리적, 논리적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이해가 떨어지거나 오류가 발생한다. 롱테일 질문이나 추론형 질문을 물어보면 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효성티앤씨, 섬유협력사 ESG 역량 키운다

6월까지 11개 협력사 대상
임직원 교육·컨설팅 등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회장(사진)이 섬유업계 중소 협력사에 ESG 역량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준다.

효성티앤씨는 16일 협력사들의 ESG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EU 등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공급망 실사법’ 등으로 협력사의 ESG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결정됐다.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



소 등 ESG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과 환경 오염 등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하는 제도다. 효성티앤씨는 ESG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1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ESG 교육 ▲ESG 진단 및 가이드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력사의 ESG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SG 규제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힘든 중소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티앤씨는 국내 섬유업계 최초로 중

소 협력사들의 친환경 인증 발급도 지원한다.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이 ESG 규제 대응 등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과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바이오 섬유인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로 원단을 제작하는 21개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GRS ▲SGS 에코 프로덕트 마크 인증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ESG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기업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며 “효성을 비롯한 협력사들의 ESG경영 강화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섬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SKT, 핀드롭과 음성인증 AI 서비스 출시

최대 정확도 98% 수준 성문 등록
AI 컨택센터 상담시간 대폭 단축

SK텔레콤은 글로벌 음성기술 선도기업인 핀드롭(Pindrop)과 AI(인공지능) 컨택센터 등 대상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AI 기반 음성인증 기술은 이용자의 고유 음성을 판별하여, 추가 인증 없이 간단한 음성만으로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AI 컨택센터의 경우, 음성인증 기술 활용시 고객 상담시간 및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미국 핀드롭사의 음성인증 기술은 최대 정확도 98% 수준에 대화 음성으로 성문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버라이즌,



SKT 이규식 Enterprise AI사업담당(왼쪽)과 핀드롭 마이클 휴즈 부사장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BT 등 다수 글로벌 업체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녹음된 목소리나 비슷한 목소리로는 인증이 불가능한 뛰어난 보안성과 편의성을 자랑한다.

/채윤정 기자

금호타이어

獨 車전문지 성능평가 국내 업체 중 ‘최상위’

금호타이어가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아데아체(ADAC)와 아우토 빌트가 실시하는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6일 밝혔다.

독일 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아데아체 테스트에서 금호타이어의 유럽형 여름용 타이어 ‘엑스타(ECSTA) HS52’가 테스트 결과 8위를 차지하며 국내 타이어 업체 중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테스트 평가항목은 마른 노면/젖은 노면의 주행 만족도와 마일리지/마모/소음 등 환경적 균형에 대한 평가만족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동국제강 스틸샵서 ‘정품 후판 정척재’ 판매

주문 즉시 생산 방식으로 신뢰 더해

동국제강이 자사 철강전자상거래사이트 ‘스틸샵’에서 ‘KS인증 정품 후판 정척재(사진)’ 판매 서비스를 오픈하며 안전 철강재 수요 공략에 나선다.

16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후판 정척재’는 지정 규격(2438x6096) 후판이다. 교량이나 건설용 보강재, 철강 구조물, 플랜트 등에 쓰인다. 비조선 후판 연 수요 350만톤 중 약 40%를 차지한다. ‘KS인증 정품’은 항복강도 KS SS275를 충족하는 정척재를 말한다.

스틸샵은 ‘주문 즉시 생산’ 방식으로 신뢰를 더했다. 구매자는 스틸샵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시간·장소 구애없이



구매할 수 있다. 물량과 납기 선택도 자유롭다. 주문 완료 시 동국제강 당진공장에서 즉시 만들어져 원하는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배송한다. 가격도 스틸샵 기존 품목 대비 저렴하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2026년까지 연간 25만톤 판매 규모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U+tv서 티빙 본다… LGU+, 라인업 개편

티빙과 홈서비스 협력 강화
전용 요금제·부가서비스 출시

“U+tv에서 티빙 보세요”

LG유플러스가 OTT TV 라인업 개편에 나선다.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인 LG유플러스와 티빙이 홈서비스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 서비스 U+tv에서 OTT 서비스 ‘티빙’을 볼 수 있도록 ‘OTT TV’ 라인업을 개편하고, 전용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티빙은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47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OTT 서비스다. 티빙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최신 방송 VOD, 국내외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인기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편리한 시청경험, 나에게 꼭 맞는 콘텐츠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OTT TV를 론칭한 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힘써왔다. OTT TV에서는 넷플릭스·디즈니+·유튜브 등 OTT와 LG유플러스의 아이들나라·홈트Now 등 인기 콘텐츠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OTT TV 라인업 개편으로 TV 대화면을 통해 환승연애·술꾼도시여자들·유미의세포등등티빙오리지널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또 tvN, Mnet, JTBC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과 파라마운트+의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채윤정 기자

KYO
WON 교원투어

떠나고 싶은 마음에게
쉽게 답을 주는 여행사

여행이지

교원이 만든 새로운 여행사 여행이지와 함께
당신이 원하던 여행을 쉽게 떠나 보세요



WEB AWARD
22 INNOVATOR

웹어워드코리아 2022
문화/레포트 부문 대상 수상

수상대상 (주)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X 파인너츠



www.kyowontour.com

SVB 파산 여파… 스위스 CS주가 폭락, 국내 은행株 ‘긴장’

〈크레디트스위스〉

한국거래소, 국내 은행주 약세
하나금융 3.21%, 신한 2.81% ↓
CS주가 급락, 금융주에 영향 미쳐

英 바클레이스, 獨 코메르츠뱅크 등
유럽 은행주들도 7~12% 급락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더해 스위스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주가 폭락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주도 휘청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주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 및 조달 구조 측면에서 국내 은행들의 안정성이 높아 SVB, CS 사태 등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VB 파산 사태 이후 국내 은행주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 위기로 금융 혼란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16일 아시아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뉴시스

전일 대비 3.21% 하락한 4만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지주(-2.82%), KB금융(-1.94%), BNK금융지주(-1.59%), 우리금융지주(-1.35%) 등도 하락 마감했다. 이외에도 지방은행인 JB금융지주(-2.85%)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0.82%)도 떨어졌다.

간밤 CS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SNB)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CS 주가가 급락한 것이 국내 금융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전날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은행주 전반에 하락세가 확산됐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CS의 주가는 14%가량 하락했으며, 퍼스트 리퍼블릭뱅크(-21.37%), 팩웨스트 방코프(-12.37%), JP모건체이스(-4.72%), 모건스탠리(-5.09%), 골드만삭스(-3.09%) 등도 크게 떨어졌다.

영국 바클레이스, 독일 코메르츠뱅크, 프랑스 BNP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다른 유럽 은행주도 7~12% 급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SVB 사태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SVB보다 상징성이 큰 유럽의 대형은행 위기가 불거졌다는 점은 은행권의 유동성 불안 우려를 한층 더 자극했다”고 말했다.

CS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SVB와 CS 사태가 국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VB, CS와 달리 국내 은행들의 경우 자산 및 조달 구조 측면

에서 안전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VB 사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일부 은행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의 실패”라며 “글로벌 및 국내 주요 대형 은행의 경우 자산 다변화가 양호하고 예금도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주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SVB 사태 등에 따른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점은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극단적인 글로벌 은행들의 연속적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국내 은행주의 경우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조정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증시 부진에도 상장사 주주 4.1% 늘었다

예탁결제원, 작년 12월 1441만명
1인당 평균 5.85종목 소유, 1.8% ↓

작년 증시 부진에도 상장사 주주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주주는 14% 늘어나 6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중복 소유자를 제외한 실제 주식 소유자가 144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소유종목은 5.85종목으로 전년보다 1.8% 줄었고, 1인당 평균 소유주식 수는 7688주로 0.8% 감소했다.

소유자 구성을 보면 개인소유자가 1424만명(98.8%)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유자 4만3000 법인(0.3%), 외국인소유자 3만3000명(법인)(0.2%)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식 수도 개인소유자 561억주(50.7%), 법인소유자 407억주(36.7%), 외국인소유자 133억주(12.0%)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인소유자의 소유주식 수가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소유자의 소유주식 수가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소유자수가 가장 많은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로 638만755명이었고, 카카오(206만6529명), 현대자동차(120만9826명)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29만3천904명), 셀트리온헬스케어(27만7천691명), 에코프로비엠(22만5천308명) 순으로 주주가 많았다.

외국인 소유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는 33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가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보험(82.0%), S-OIL(77.3%), 락앤락(77.1%) 순으로 외국인 소유 비율이 높았다.

개인투자자는 40대가 327만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소유주식 수는 50대가 192억주(3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743만명(52.2%), 여성이 681만명(47.8%)으로 비슷했으나 소유주식 수는 남성이 399억주(71.1%)로 여성(162억주·28.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법인 소유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379만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5만명(24.6%), 부산 88만명(6.1%) 순이었다.

거주지·성별·연령대별 소유자 분포로 보면 경기도 수원시 거주 40대 남자가 4만5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 40대 여자(4만3800명), 경기도 수원시 거주 40대 여자(4만38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소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거주지·성별·연령대는 서울 강남구 거주 50대 남자(11억8000만주)였다.

/원관희 기자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시장·회사별 소유자수 상위 5사〉 (단위: 명/예탁결제원)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법인명	소유자수	법인명	소유자수
1위	삼성전자	6,380,755	카카오게임즈	293,904
2위	카카오	2,066,529	셀트리온헬스케어	277,691
3위	현대자동차	1,209,826	에코프로비엠	225,308
4위	네이버	1,051,660	하림	202,014
5위	SK하이닉스	1,007,067	엘앤에프	173,919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나무

“가상자산 점유율 산출시 해외시장 포함해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
“가상자산 종류 2만여종 달하고
특성상 새로운 자산 계속 등장
국내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해외 포함 시장 획정이 타당”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확정 시 지리적 시장을 국내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는 특성상 해외 시장을 염두하고서 점유율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렇게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 내에서 최근까지도 선두업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점유율의 89% 차지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업비트가 84%까지 차지하

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 시장 점유율 판단시 국내로만 한정짓기 보다는 해외시장을 분리해서 바라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종류는 2만여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성상 새로운 자산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로만 한정할 경우 점유율이 높은 국내 거래소라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와 비교하면 순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6~10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웹·모바일 방식으로 접근이 용이한 가상자산 거래 산업 특성상 국내 투자자들도 이미 상당 수가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국내의 거래소 월간 평균 방문수(2021 7월~2022년 6월

기준)만 보더라도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각각 8.3%, 6.8%를 차지하면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웹으로만 한정할 경우 바이비트가 월평균 방문자가 전체 2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각 거래소의 락인효과가 낮다는 점 등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날 DCON 행사에서 시장 확정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 토큰증권발행(STO)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받은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뷰티업계, 비건·친환경 화장품으로 ‘제로 열풍’ 올라탄다

LG생활건강 ‘비온드’
울릉도 식물 추출 크림 2종
아이소이
쿠션 등 제품에도 비건 인증
CJ올리브영
‘비건뷰티존’ 따로 만들 계획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로 열풍이 뷰티 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0칼로리, 저당을 선호하는 ‘헬시플레저(Healthy+Pleasure)’ 트렌드가 먹는 것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까지 확산되며 유해 의심 성분·동물성 원료 실험 제로(0) 상품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LG생활건강은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는 지난 2일 울릉도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을 출시했다. 울릉도에서 자란 전호 추출물과 릴리프 시카



LG생활건강 ‘비온드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

콕플렉스를 함유한 포몰로로 수분감과 진정 효과가 탁월하다.

24시간 동안 피부 겉보습과 속보습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노코메도제닉 테스트까지 마쳐 여드름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비건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으며, 페플라스트를 재활용한 용기를 적용해 환경까지 신경 썼다.



아이소이 ‘스킨케어 비건쿠션’

자연유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는 스킨케어뿐 아니라 파운데이션, 쿠션 등의 메이크업 제품에도 비건 인증을 받고 있다.

아이소이 비건 메이크업 라인의 대표 제품인 ‘스킨케어 비건 쿠션’은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자연유래 성분 쿠션으로 미백 기능성과 주름 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까지 3중 기능성 제품이다.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았으



며 피부 자극 테스트 저자극 판정으로 자극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판정도 받았다.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페’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 제품이자 베스트셀러인 ‘어센틱 립밤’은 국내 최초 비건 인증을 받은 립스틱이다. 지난달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의 달달한 향을 담은 어센틱 립밤의 한정판 세트

‘베어 하트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2023년 시장을 운영할 전략 키워드로 ‘비건 뷰티’를 선정하고 주요 매장에 ‘비건뷰티존’을 따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는 2023 뷰티 트렌드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성분과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배제하고 친환경 포장을 실천하는 어웨어뷰티(AWARE BEAUTY)를 제시한 바 있다. 앱 내 비건, 환경 관련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대비 3.6배나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헬시플레저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도 비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로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인재들 성장에 LG가 함께 할수 있기를”

‘LG테크콘퍼런스’ 개최
구광모 회장 등 계열사 경영진 참석
국내 이공계 R&D 인재들 초청
LG 기술 혁신 현황과 비전 소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기술 인재들을 만나 함께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찾자고 당부했다.

LG는 16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테크콘퍼런스’를 개최했다.

LG테크콘퍼런스는 국내 이공계 R&D 인재들을 초청해 LG 기술 혁신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다. 2012년 처음 시작해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총출동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에는 슬로건을 ‘파인드 유어셀프, 파인드 유어 퓨처’로 정하고 인재들이 LG 기술과 회사를 만나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찾기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구 회장은 다음날 일본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테이בל을 앞두고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LG AI 연구원의 AI 휴먼 팀다 소개를 받으며 행사 문을 열었다.



구광모 LG 회장이 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직후 가장 먼저 LG사이언스파크를 찾으며 R&D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권봉석 (주)LG COO(부회장)와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대표(사장) 등 계열사 CTO와 CDO 등도 동석했다. 참가자들에 선물한 슬로건이 담긴 후드티를 함께 입고 참석해 자유롭고 활기찬 분

위기를 연출했다.

구 회장은 틔다가 꿈과 미래, 사람을 키워드로 그린 그림과 함께 혁신과 인재 향환 LG 원칙을 소개하며 인재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구 회장은 “LG의 꿈은 사람들의 삶에 행복한 경험을 드리고 상상을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모두가 미소짓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꿈과 성장에 대한 고민이 더 큰 열매로 맺어지길 항상 응원하며, 그 여정에 LG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LG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등 총 26개 기술 분야의 테크 세션을 마련하고, 참석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LG의 우수 기술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테크 세션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GenZ(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출생한 세대)인 점을 감안해 참가자 본인이 듣고 싶은 기술을 사전에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웅기자 juk@

현대차·기아 국내 3개 대학과 에너지 연구 협력

전기차 에너지 분석 기술 등 과제 수행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우수 대학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전기차 에너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중앙대학교·홍익대학교 및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연구실’을 설립하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연구실은 eP(전기 파워트레인) 연구그룹과 열에너지 연구그룹, 에너지 플로우 분석그룹으로 구성된다. 각 연구그룹은 전기차 에너지 분석 기술과 배터리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통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인프라를 공유한다. 그리고 전공 분야에 기반한 단일 주제를 연구하는 테마 연구 과제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한다.

eP 연구그룹은 서울대 기계공학부 민경덕 교수팀과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박성진 교수팀이 맡아 전기



박정국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사장(왼쪽)이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차 배터리 열관리 개발 프로세스 및 배터리 액침 냉각 시스템을 연구한다.

열에너지 연구그룹은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민수 교수팀과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김민성 교수팀이 맡는다. 냉매를 이용한 고효율 히트펌프 시스템 연구와 히트펌프 물리 해석 모델 및 부품 모듈화 개발을 담당한다.

에너지 플로우 분석그룹은 서울대 기계공학부 송한호 교수팀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에너지 제어 전략 및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신세계百貨, 60년만에 첫 노조 설립… 유통업계, ‘당연한 일’

가입자 대다수 30대와 40대

60년 만에 신세계백화점에 평균 연령 30대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조 측은 내부 직원의 노조 가입 독려와 사측의 불투명한 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활동을 첫 번째 행동과제로 삼았다.

16일 신세계노조는 신세계백화점 내 첫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조의 정식 출범이 향후 신세계의 경영 활동과 타 계열사 내 노조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오후 김영훈 신세계 노조 위원

장과 조함원 7명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 섬유·유통노동조합에 소속했으며, 16일 현재 총 2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가입자 대다수는 30대와 40대다.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일반통행식 임금협상 중단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개편 ▲물가상승율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메트로 경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달 17일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 소식을 전한 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수

가 200여 명”이라며 “첫 번째로 염두에 둔 안건은 인사 제도 개편과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신세계백화점 노조 출범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향후 노조 활동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기성 노조와 달리 ‘MZ세대’로 구성된 신생 노조들이 주로 정례 파업과 정치적 투쟁보다는 기업에 근로자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협상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과거 제조업, 50대 중심 노조의 활동과는 결이 다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전동화 모델 U100 차명 ‘토레스 EVX’ 확정

쌍용자동차가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전동화 모델인 U100의 차명을 확정하고 실차 이미지와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U100’으로 개발해온 차명을 ‘토레스 EVX’로 확정하고, 출시에 앞서 내·외관 이미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신차 알리기에 나섰다.

쌍용차 관계자는 “토레스 EVX의 차명은 정통 SUV를 추구하는 토레스의 강인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에 전기자동차를 의미하는 EV와 SUV 본연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는 엑스트림의 X를 더한 것으로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 넘는 모험과 도전정신의 가치를 담아 브랜딩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차명에 담은 브랜드 목표와 함께 토레스 EVX의 내·외관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쌍용차의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모델의 스타일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수평형의 도트 스타일의 변별광 LED 주간주행등(DRL)을 적용하여 전기차만의 옛지있는 차별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소상공인 90% “대출 이자로 힘들다”… 60%는 빚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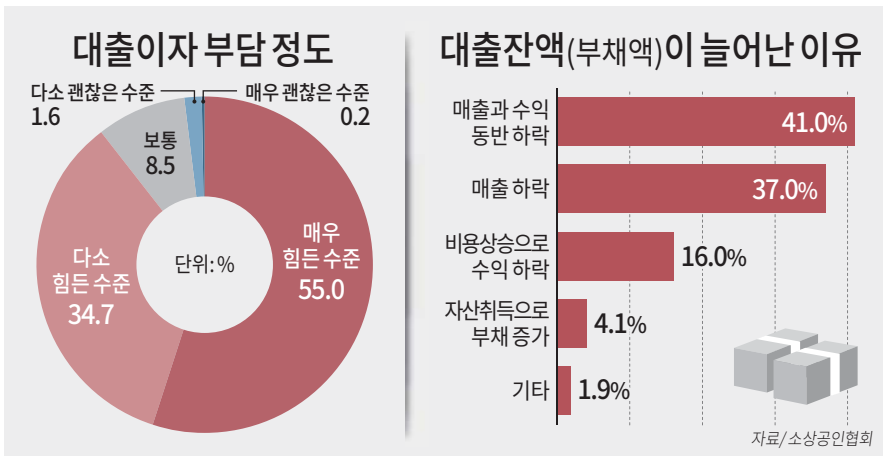
소상공인연합회, 1430명 조사
매출·수익 하락 ‘은행빚’으로 해결
가장 필요한 금융정책 사항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행’ 꼽아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1년전에 비해 부채가 더 늘었으며 평균 부채는 3000만~1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55%는 ‘매우 힘든 수준’, 34.7%는 ‘다소 힘든 수



준’으로 답해 전체의 89.7%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은 8.5%였다.

‘1년 전과 비교한 부채 증감 수준’에 대해선 31.1%가 ‘매우 늘어남’, 32.3%가 ‘다소 늘어남’이라고 답해 응답자의 63.4%가 대출이 증가한 모습이다. 반면

‘줄었다’는 10.8%에 그쳤다.

‘대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41%는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을, 37%는 ‘매출 하락’을 각각 꼽아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떨어져 은행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자 가운데 ‘적자를 봤다’는 소상공

공인은 36.2%로 집계됐다. 또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도 13.8%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가운데 ‘정책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81.1%, ‘가계 대출로 자업자금을 조달’했다는 답변은 90.8%로 나타나 정책자금의 부족해 결국 가계대출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97.4%는 여전히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액은 ‘5000만~1억원’이 27.6%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이 22.5%, ‘3000만원 미만’은 15.8%였다. 부채가 2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15%에 달했다.

아울러 대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39.8%), ‘대출한도 제한에 따른 추가대출 불가’ (36.2%) 등이 주를 이뤘다.

정부의 금융정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시행’이 47.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 1월 시행한 2% 금리의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융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나흘 만에 마감됐다”면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삼중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대부분은 대출로 버티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확대와 금융권의 가산금리 동결 또는 인하 등 종합적인 금융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2970억 녹색보증 추진

산업부,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중소 100억원·중견 200억원 한도

정부가 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올해 297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 사업을 1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 3643억원, 2022년 2818억원에 이어 올해는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총 9431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

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한다.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돼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이었으나 올해는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으로 포함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된

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6일 이후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한국지식재산보호원 中소 특허분쟁 대응 ‘맞손’

지식재산 보호분쟁 등 협업 진행

기술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

업과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정책자금 신청 방식 ‘전수 접수’로 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책자금 신청 방식을 오는 3월20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절차를 운영해온 결과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경우가 발생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었다.

중진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달 접수기간 내에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정책자금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전수접수방식으로 개편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혁신성장분야, 고용창출, 수출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비닐하우스 필름 ‘담합’… 과징금 10억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나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 공급과잉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한데,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비닐하우스 필름 계통거래 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려 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가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과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표고버섯 자외선 처리로 저장기간 확대

농진청 연구, 부패발생 억제

농촌진흥청이 생표고버섯에 자외선을 처리하면 부패 발생을 억제해 저장기간을 늘리고 기능 성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 끝에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처리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침입으로 상하기 쉬운 생표고버섯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기능성분의 함량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연구진은 수확한 표고버섯 온도를 1.5℃ 정도로 낮추고 버섯 갓이 위를 보도록 쌓은 뒤 저농도 자외선을 7킬로줄(kJ) 강도로 쏘었다.

그 결과 저온(1℃)에서 30일 저장한 뒤에도 부패균 감염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표

고버섯은 상온에서 3일, 저온에서 24일 저장할 경우 부패균 감염이 확인된다.

또, 자외선을 180초간 처리한 뒤 1℃에서 30일 저장한 표고버섯의 상품성은 약 90%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70%)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자외선 처리는 표고버섯의 기능 성분 유지에도 도움이 됐다. 자외선을 쏘인 뒤 상온에서 5일 저장한 표고버섯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보다 식물성 콜레스테롤인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2배 이상 높았다. 자외선을 쏘인 뒤 저온 저장했을 때는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최대 30일까지 유지됐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이성 향산화제인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도 자외선을 처리했을 때 높았고, 상온 저장했을 때 차이가 벌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동아리 곳곳에 숨어든 ‘JMS’… 비공식 모임 파악 어려워

일반 동아리로 위장해 포섭도
종교 동아리가 아닌곳도 있어
총학생회·동아리연합 등 논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대학가에서도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내에서 일반 동아리로 위장하는 등 자연스럽게 포섭을 시도하지만, 중앙 동아리가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워 대응책이 요구된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곳곳에 숨어 있는 ‘JMS’ 관련 동아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종교 동아리가 아닌 일반 동아리로 위장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희대학교 신입생인 김모(19)씨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 대학교에서 열린 동아리 박람회에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시스

는 “JMS 관련 동아리 리스트를 보게 됐는데, 종교 동아리가 아니었던 곳도

있어서 무섭다”며 근심을 털어냈다. 경희대는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일명 ‘JMS 대학 동아리 리스트’에서 일전에 제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아리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에게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이라고 하는 학생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교별로 동아리들이 있다”며 “사이비를 관리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가 리스트에 오르면서 움직임이 시작된 대학도 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20대)씨는 “학교 커뮤니티에 관련 동아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동아리 연합회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이비 동아리들도

정상적인 척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두 개쯤은 속여도 학생들이 잘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대 학생 담당 부서와 동아리연합회는 대응 마련책이나 피해 사례 조사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중앙 동아리처럼 학교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댄스 동아리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중앙 동아리나 학과 차원의 활동 모임을 검토한 결과 그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까지는 현재로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내 ‘JMS’ 관련 동아리가 과거에 퇴출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동아리가 과거에 있었다는 정황이 기록상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상에는 해당 동아리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출됐다 등의 소문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중앙 동아리로 개설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마스크’ 캠퍼스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학교마다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는 등 동아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에게 ‘JMS’ 동아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발해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마냥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총학생회, 동아리연합 등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학기 초인 만큼 결정된 사안은 적은 편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과감한 혁신’… 지역 이끄는 글로벌大 육성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추진’ 공청회
제2차 회의에서 확정, 4월 초 선정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하게 될 것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해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설명한 후 대학·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글로벌대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

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벌대학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대학으로 육성해,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내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통해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해 글로벌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며, 제2차 글로벌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초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자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는 대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벌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교육청, AI교육 우수사례 공유

인공지능 융합 교육 활성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과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빠르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학교용)’,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교육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은 서울시교육청 AI교육 선도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교과 수업 속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천한 다양한 사례들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있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 표지 /서울시교육청

며, 2022학년도에는 249명의 교사가 선도교사단으로 활동했다.

AI교육 사례 나눔집에는 ▲(초등학교) AI식물도감 만들기, 인공지능과 스마트한 미래도시 만들기 ▲(중학교) ‘A·B·C·D 프로젝트’를 적용한 교과 수업 혁신, AI를 활용한 소설 임팩트 프로젝트 ▲(고등학교) 인공지능과 교과로 풀어보는 문제, AI로 나의 진로 찾기 등 초·중·고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세훈, 세계 시장회의서 ‘서울형 헬스케어’ 알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우수 건강 정책을 소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도시파트너십은 암·당뇨·심혈관계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과 상해 예방을 위해 구축된 세계 도시 네트워크다. 블룸버그 재단이 지원하며, 서울·런던·파리·도쿄 등 70여개 도시가 참여한다.

올해 최초로 개최된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서 오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 등 공공 의료시설 확충 ▲서울시의 금연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5년간 594억 투입… 여의도 ‘금융중심지’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서울시는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진흥계획은 진흥지구를 중심으로 권장업종 활성화 방안과 권장업종 기업 및 시설 관리 방안,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이번 진흥계획에 따라 여의도는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로 거듭난다.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설립, 핀테크기업 육성, 금융중심지 브랜딩 홍보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어 친화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부터 2027

년까지 593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건축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는 영등포구와 함께 여의도 일대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달 28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포4동 일대(46만4048㎡)를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로 선정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 도입한 제도다.

/김현정 기자

상암 DMC 랜드마크 조성사업 착수

용지 매각 공급 공고 16일 시작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 공급 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급하는 필지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246) 2곳이며, 총 면적은 3만7262㎡이다. 두 필지를 공동 개발할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공급 가격은 8254억원이다. 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시는 해당 부지에 서북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

화할 수 있는 첨단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센터는 랜드마크 빌딩으로 건립된다. 랜드마크 빌딩은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마스크 벗고 봄 맞이해 봄”... 호텔업계, 패키지상품 봇물

제주신라호텔 ‘필 더 스프링’ 운영
매주 월~금요일 제주 자연 안내
위커힐호텔앤리조트 ‘벚꽃축제’
내달 첫째·둘째 주말 ‘와인페어’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 ‘꽃강스’

호텔업계가 엔데믹(풍토화) 시대를 맞아 봄 패키지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3년 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 전격 해제와 각 지역 봄축제 재개로 여는 때보다 외출 수요가 높은 만큼, 나들이객 사로잡기에 열 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제주신라호텔은 ‘필 더 스프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레저 전문가들이 각 꽃의 절정기에 따라 제주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2시간 진행된다.

위커힐호텔앤리조트는 4년 만에 시그니처 행사인 ‘위커힐 벚꽃 축제’를 연다.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주말에 세계



벚꽃이 활짝 핀 거리를 사람들이 걷고 있다. 3년 만에 지역축제가 전격 재개하면서 호텔가의 봄 패키지가 여는 때 보다 풍성하다. /부산시

각지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와인 페어를 진행한다. 또 4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야외 공간 포레스트 파크에서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는 꽃강스 프로모션 2종을 연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일식 파인 다이닝 리쿠는 벚꽃 콘셉

트의 시즌 한정 음료를 판매하며,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온천인 씨메르에서 스프링 가든 스파를 5월까지 운영한다.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올해는 봄 여행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색다른 꽃

놀이 콘텐츠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복잡한 봄꽃 명소를 벗어나 호텔로 여유롭게 이색 꽃맛이를 떠나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오롱리조트앤호텔은 봄철 피로 예방과 힐링을 콘셉트로 ‘리바이브 유어 스프링’ 패키지를 출시했다. 메모리오브코오롱호텔스 패키지는 객실 내에서 머무르는 동안 향기로 힐링할 수 있도록 패브릭 피부를 증정한다.

스피링 바데풀 패키지는 마운틴뷰를 자랑하는 객실과 힐링 물놀이, 수압 마사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펫 힐링 패키지는 반려동물을 위해 편백나무 히노끼 탕부터 스파 입욕제 전용 샴푸 및 타올을 준비한 패키지다.

시그니엘부산도 4월 9일까지 투숙가능한 봄맞이 어게인 블루밍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번 벚꽃 시즌 패키지는 객실 1박과 벚꽃 케이크 1개, 인스타스카메라(대여), 부산 최고층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2매가 제공된다.

롯데호텔 마케팅 관계자는 “호텔 인

근에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숨겨진 장소가 많다”며 “이번 벚꽃 시즌에는 호캉스와 함께 편안한 벚꽃 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호텔도 5월까지 ‘스프링 피크닉’ 패키지를 판매한다. 여유로운 크기의 페어몬트 룸에서의 1박과 스펙트럼 뷔페에서의 조식, 그리고 도보로 10분 내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 공원으로 가벼운 봄 소풍을 떠날 수 있는 피크닉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피크닉 세트에는 페어몬트 피크닉 매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레드와인 1병과 샤키테리 세트도 함께 제공된다. 샤키테리 세트에는 와인 안주로 찹떡궁합인 다양한 쿨드 컷과 치즈,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바게트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 세계에 ‘CDMO 비전’ 알린다

20~23일 美 ‘2023 디캣워크’ 참가
존립 대표 참여, 글로벌 인사와 교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20~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23 디캣 워크(DCAT Week)’에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디캣워크는 1890년 뉴욕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디캣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바이오제약 분야 대표 네트워킹 행사로, 13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참가자의 90% 이상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간 파트너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알려졌다. 올해는 약 1만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로 인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해 개최되지 않은 2020년 행사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주요 프로그램의 후원 기업으로서 참여한다. 특히 존립 대표가 직접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별화된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과 사업 비전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제약 업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0일 오전에는 케빈 샤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회원사 발표 포럼 연사로 초청돼 ‘제2바이오캠퍼스 확장 계획’을 주제로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요 빅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 세일즈 오피스(영업 사무소)를 현지시간 19일 정식 개소한다.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고객 소통채널 확보 등 영업 역량 측면에서도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하이트진로 ‘테라’ 비유전자변형 인증 획득

美 단체서 ‘NON-GMO’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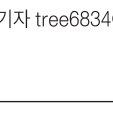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미국 비영리 단체 ‘NON-GMO 프로젝트’ 주관의 NON-GMO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소비자들이 영양 섭취 목적 외에도 먹거리에 대한 알 권리, 신념에 따른 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트렌드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청정라거-테라’에 대한 NON-GMO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다.

NON-GMO 프로젝트 측 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테라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부터 2차 성분까지 유전자 변형 없는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또한 테라로 탄생하기까지

모든 원료 유통, 양조 과정, 생산 설비 관리까지 타 재료와 혼입되지 않기 위한 관리 시스템과 예방조치절차서를 구축했다.

하이트진로는 원재료부터 생산 전 공정에 걸쳐 GMO 재료가 혼입되지 않는다는 NON-GMO 프로젝트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기까지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미국에 설립된 NON-GMO 프로젝트는 2200개 이상의 브랜드에 대해서 2만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 진행한 바 있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NON-GMO 프로젝트의 인증은 유전자를 변형한 농작물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종자를 재배해 수확한 작물로 식품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컬리 “펫용품 할인받고 사료 기부해요”

하림펫푸드와 협업 펫케어 행사

컬리가 23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최대 45% 할인하는 펫페어를 열고, 하림펫푸드와 협업해 고객의 구매금액에 따라 유기견에 사료를 기부한다.

이번 펫페어는 사료, 간식, 펫강스 숙박권, 각종 용품 등 700여 가지 반려동물 상품을 한데 모았다. 기획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특가 상품도 판매한다. 하림펫푸드, 골드로나, 바이트미 등 인기 브랜드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펫페어에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마켓컬리와

하림펫푸드가 함께 하는 유기견 사료 기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고객이 5만원 이상 기획전 상품 구매 시 100g 상당의 사료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종 집계 후 유기동물보호센터인 레인보우쉼터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는 하림펫푸드의 데리얼 필렛 오리·닭 안심 2종이 증정품으로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Kurly

CJ제일제당, 수제형 소시지 출시 ‘육공육 더블에이징 후랑크’

CJ제일제당은 프리미엄 수제형 소시지 ‘육공육 더블에이징(Double-aging) 후랑크 허브&페퍼’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독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마이스터(장인)가 허브, 페퍼와 구운 채소를 조합해 새로 개발한 방식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짜지 않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소비자가 소시지를 구워 먹을 때 감칠맛과 고소한 육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삼겹살, 돼지 뒷다리살 등을 최적으로 배합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육공육 더블에이징 후랑크 허브&페퍼’는 프라이팬만 있으면 간편하게 근사한 식사를 만들 수 있어 캠핑이나 브런치용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화점 免 ‘메타버스면세점’ 만든다

올림플래닛과 업무협약 체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메타버스면세점’ 구축에 나선다.

지난 9일 현대백화점그룹은 메타버스 전문 기업 올림플래닛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플래닛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엘리팩스’를 활용해 메타버스 현대백화점면세점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고객들은 인터넷 면세점에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상품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에 메타버스관(가칭)을 이르면 올해 안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육우석 마케팅 담당(상무)은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육우석 현대백화점면세점 마케팅담당(상무, 오른쪽)과 권재현 올림플래닛 대표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사가 추진중인 스마트 면세 서비스 구축 기조에 발맞춰, 면세점 업계 디지털 서비스 분야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구자은 LS그룹 회장, 인터배터리 2023 참관

“EV분야 그룹 역량 결집… 고객에 ‘최적의 답’ 제공해야”

그룹 전시장 방문… 임직원 격려
LG엔솔, 삼성 SDI 등 부스 살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점검하며 ‘배전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

구 회장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3’을 참관했다.

구 회장은 LS그룹 전시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한 이후, 전시장을 둘러보며 배터리 산업 발전 현황을 살폈다.

LS그룹 전시장은 270㎡ 규모로 전 기차 소제와 부품, 충전 솔루션 등 그룹 차원 EV 밸류체인 역량을 소개했다. ‘올 댓 에너지, LS’라는 주제로 7개 계열사가 모여 ▲ESS ▲K-Battery ▲EV Charging ▲EV 등 4개의 존을 구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인터배터리 2023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했다.

이날 전시장에는 구 회장뿐 아니라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주)LS 명노현 부회장, LS MnM 도석구 부회장, (주)LS 안원형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구동휘 부사장 등 관련 계열사

경영진 및 임원들이 방문했다.

구 회장은 LS그룹 전시장을 방문해 전시 부스를 꼼꼼히 살펴본 후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등의 부스를 돌아보며 최신 배터

리 산업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배터리 분야 리딩 기업들이 ▲배터리의 고효율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준비 ▲리사이클링 순환경제로의 이동 등을 대비한다는 산업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다”며, “LS도 EV 분야 소재에서부터 부품, 충전 솔루션까지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고객에게 최적의 답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대응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KT, ‘다화용컵 무인 솔루션’ 개발 나서

KT와 일화용품 대표 서비스 기업 트래쉬버스터즈가 다화용컵 활성화와 ‘다화용컵 무인 회수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KT 강북강원법인과 객본부 유창규 상무(오른쪽)와 트래쉬버스터즈 박재원 대표(왼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KT



LGU+, ‘빵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 전개

LG유플러스는 ‘U+희망나눔 빵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은 전국에 있는 빵나눔터를 통해 빵 만들기 참여하고, 완성된 빵은 대한적십자사와 연계된 지역 시설이나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LG유플러스

삼양식품, 전쟁·지진 피해극복 앞장

김정수 부회장 로마 교황청 방문
할랄 인증제품 등 라면 20만개 후원

삼양식품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로마 교황청에 라면 20만개를 전달한다.

삼양식품은 김정수 부회장이 15일(현지시간)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있는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과 자선소장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을 만나 전쟁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해 20만개의 라면을 후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후원품은 삼양라면 등 유럽과 중동



15일(현지시간)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라면 20만개를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콘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 /삼양식품

지역에 수출되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구성되며 교황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피해 지역 곳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동서식품은 김석수 회장(사진)이 전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을 개



발하여 국내 커피시장의 성장을 선도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원선기자

3월 17일 (금)
음력 : 2월 26일

수도권 날씨
1 ~ 1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41 | 해질 / 18:40

백령도 2/8

파주 -3/12

연천 -4/13

동두천 -2/14

가평 -3/14

서울 1/13

양평 -2/15

인천 1/10

수원 2/13

용인 2/13

평택 -1/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무공해차 전환 100’ 우수기업

롯데제과 업무·배송차 전환 등 업계 선도

환경부 장관상 수상

롯데제과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이하K-EV100)’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영업사원에 업무용 전기차를 지급하고 배송용 차량까지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며, 무공해차 전환에 있어 업계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2021년 478대, 2022년 171대를 전환하며 전체 보유 차량의 약 40%를 무공해차로 운영 중에 있



최규상 롯데제과 ESG부부장(오른쪽)이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실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제과

다. 올해도 약 50% 전환율을 목표로 66억을 추가 투자하여 138대의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SK렌터카 국내 친환경차 보급·확산 기여

환경부 장관상 수상

SK렌터카는 15일 ‘EV트렌드 코리아2023’에서 승용 차량 부문 ‘2022년 무공해차 전환 실적 우수기업’에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SK렌터카는 국내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확산을 위해 환경부 주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캠페인’에 이어 ‘EV100’에 동참하



김현수 SK렌터카 EV Infra 개발본부장(오른쪽)과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렌터카

며 친환경차 전환에 적극 동참해 왔다.

/김재웅 기자 juk@



광동제약, ‘사랑의 음료 나눔’ 행사

광동제약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음료나눔’ 행사를 갖고 1억원 상당의 음료 제품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물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동제약



DGB대우은행, 복지시설 난방비 1억 전달

DGB대우은행은 16일 삼덕지역학교에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되어 대구시내 사회복지시설 340여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DGB대우은행 황병우 은행장(왼쪽 첫번째)이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대우은행



KCC글라스-IBA, 교육환경 개선 협력

KCC글라스가 사단법인 임팩트비즈니스재단(IBA)과 손잡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활동에 나선다. (왼쪽부터)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KCC글라스 김용남 이사, 박철수 임팩트비즈니스재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글라스

인사

-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재난 통제관 이종수
- ◆고려대 △교육혁신팀 부장 안선희 △교무팀 부장 전영민

부음

▲서영호씨 별세, 서정식(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씨 부친상 = 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8일, 장지 경북 군위

군 선산. 02-3010-2000

▲박순규씨 별세, 박종하(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팀장)씨 부친상 = 16일 오전 7시 46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40분. 043-210-5444

▲권태련씨 별세, 채홍완·채홍태(법무사)·채홍준·채홍호(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채홍희씨 모친상, 전호숙·박화선·박오심·신명숙씨 시모상 = 16일 오전,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8일 정오. 054-550-7948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 맞춘 관치와 내치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NH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곳의 차기 회장이 바뀌었다. 관치(官治)와 내치(內治) 진영이 각각 2곳으로 균형을 이뤘다.

최근 전직 고위 금융인을 만나 지주 회장 선임 결과에 대해 물었다. 그는 대뜸 이번 정부는 소유분산기업(사실상 주인이 없는)의 회장이 우호세력을 주변에 두고 여러 번 연임하는 행태를 달갑지 않아한다고 했다. 관료 출신이 지주 회장 자리에 오른 배경에 대해 묻자 ‘쿠데타를 제외하고, 반란군이 관군(官軍)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짜여진 판이었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에 출간된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읽어봤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인 그 책의 저자들이 전면에 부상했다는 설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었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김낙희 전 관세청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당시 농협대 총장) 등 관료출신이 함께 집필했다.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그가 주목하라고 한 저자 가운데 적어도 3명의 명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뀌었다. 최상목 전 기재부 제1차관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다. 이석준 전 기재부 제2차관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이번달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취임한다. 모두 음으로 양으로 윤 정부 출범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책 출간 당시 그들은 새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유했지만 사실상 보수 정권의 출범을 도왔다. 아슬아슬한 승부였지만 보수쪽이 정권을 잡았고, 책을 쓴 저자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책을 쓸 때부터 정권 교체를 예언했는 지 모른다. 그리고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맞물려 그 자리를 눈여겨봤을 터. 관직보다 금융지주 CEO를 꺾한 것은 신의 한수다. 임기가 다가온 4개 금융지주사의 CEO를 관료출신이 모두 차지하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 자명했다. 모든 금융지주사의 연임을 저지하고, 적당히 2곳의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2곳

은 내부 출신이 맡았다.

지주 회장 교체에 대한 복선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깔렸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CEO 선임 시에는 이사회 절차 자체의 투명성 내지 합리성, 후임자 물색 과정 등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주사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12월 “무조건 관치는 나쁘고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치와 외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주사회장 선임 과정의 ‘관치논란’에 대한 답변이었고, 이는 관료 출신 금융지주사회장이 탄생할 것이란 예고편으로 다가왔다.

4곳의 금융지주사 CEO가 내치와 관치, 2대(신한·BNK금융) 2(농협·우리금융)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들의 향후 행보가 중요해졌다. 내부출신, 외부출신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쇄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실력과 리더십에 따라 승부가 가려질 게 분명하다. 과연 ‘관치’가 나쁘기만 한 것인지, 때문 조직을 쇄신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순기능을 하는 지, 결과에 따라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다. 과연 이 승부에서 관치와 내치 가운데 누가 이길까.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중요한 것은 신용



김 지 수 집
김 정 산
(금융부)

신용은 중요하다. 경중과 관계없다. 동네 친구와의 약속은 물론, 가족, 직장 등 여러 관계에서 신용은 필수다.

신용이란 특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네 슈퍼에서 파 한 단을 사더라도 같은 값이라면 유기농 혹은 무농약을 선택한다.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식품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파와 유기농, 무농약 파의 영양소는 유사하다. 같은 값의 유기농 파 한 단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신용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의 주거래

은행 역할을 했던 SVB는 1만여 개에 달하는 미국 은행시장에서 20위권 내에 명함을 내걸 정도의 우량 금융사였다.

SVB는 팬데믹 당시 고금리를 내걸며 자금을 조달했다. 우후죽순으로 풀린 자금을 높은 비용을 부담해 조달했다. 이후 미(美)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을 시작하자 자금난에 시달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회수했다. 이후 SVB에서 자금이 말랐다는 소식이 번지면서 돈을 맡긴 기업들이 돈을 빼면서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했다. SVB가 파산한 이유는 신용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이 SVB의 파산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 클릭만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뱅크런의 속도를 높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SVB 파산의 핵심은 신용 하락이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다.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주들이 뱅크런을 시도했다. 순식간에 자금이 빠져나간 탓에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저축은행 사태 또한 신용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 유동성 비율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100%를 한참 넘어섰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중앙회가 나서서 신용을 증명했다. 금융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조기진화에 성공한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몰두하고 있다. 편의성이 높아지면 자금을 빼는 것만큼 맡기는 것 또한 간편하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3월 17일 (음 2월 26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일생을 사노라면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운이 몰라갈 때도 있으니, 48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다. 60년생 물론 시대는 달라졌지만, 72년생 삼강에서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라 했다. 84년생 직장에서 걸음걸이에 신발소리 주의.

 소

37년생 버드나무 잎이 하얗게 지든 세월이 아삭. 49년생 아름다운 여인은 대개 명이 짧거나 불운하다는데, 61년생 멀리서 소식 온다. 73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85년생 사람의 부귀는 각자의 팔자에 달렸지만 운명론에 빠질 것까지는.

 호랑이

38년생 세상에 비밀이 없다. 50년생 싱그러운 식물향기는 마음에 진정과 안위를 선물한다. 62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진다. 74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86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이니 움직여보라.

 토끼

39년생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내보수를 지키자. 51년생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한 하루. 63년생 어찌 잘못을 오늘 또 되풀이. 75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아직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87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肅亡齒寒).

 양

40년생 당장 고쳐야할 것을 방치. 52년생 사람의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부유해진 다했는데, 64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노력. 76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 88년생 기술로 자신의 저력을 보여준다.

 뱀

41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던가. 53년생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65년생 나의 사랑스런 동반자를 개새끼로 만들지 말도록. 77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89년생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도 움직여준다.

 말

42년생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려보자. 54년생 열을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마라. 66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다. 78년생 직장에서 외국어로 흥얼거린다. 90년생 산속에 살아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

 양

43년생 저 하늘이 무너지겠는가. 55년생 태양은 항상 떠오른다. 6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79년생 글자는 누가보아도 알기 쉽게 정자로 똑박똑박 쓰는 것이 좋겠다. 91년생 말을 할 때는 실행할 것을 계획하고 해야지만.

 원숭이

44년생 인생의 의의는 노력하면서 가치를 발휘하는데 있기 마련. 56년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68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다. 80년생 선행을 행하니 열배로 돌아온다. 92년생 웃이 날개이니 의복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자.

 닭

45년생 비평을 줄이자. 57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큰 행복. 69년생 열차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좋겠다. 81년생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자리에 정리정돈하여 가정이 평온하기를. 93년생 덮어놓고 하다보면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니.

 돼지

46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58년생 부와 귀는 조상님의 은덕으로 내가 부여받은 것. 70년생 어지럽게 늘어놓은 옷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루가 즐겁다. 82년생 부부라도 일가장을 엮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94년생 질투도 습관.

 돼지

47년생 마음이 가는 대로 간자. 59년생 영화를 본다. 71년생 아버지 나를 나오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제사 자비를 피하지 말 것. 83년생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95년생 친구에게 밥을 사면서 생색내는 마음을 접는 것이.

김상회의四季

사주학 풀이 ⑰



자, 인수가 변해서 상식이 되면 배운 즉시 써먹는다고 했다. 토금土金일주만 인수印綬가 변해서 상식傷食이 된다. 수목水木火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식이 없어도 잘 써먹는 것이 화火일주이다. 화 자체가 말이고 화술인데 갑술년甲戌이면 배워서 써먹는다. 목木일주가 임오년壬午이오면 천건天干은 인수요 지지는 상식이니 공부해서 써먹는다. 임술년壬戌엔 공부하면서 돈벌어야하니 아르바이트 나가야 한다. 기사己巳일주가 역학 공부하는데 유년酉이면 사유巳酉로 응용력 추리력이 생기고 이치가 터진다. 왔다가 가는 경우에서 사유己酉일주가 사巳날되니까 어머니가 왔다. “이들간 지내다 간다”했다. 그러자 역학자는 “어머니는 금방가실거야”했다. 사유巳酉로 사巳인수가 없어져 버렸으니 “일이 있는데 깜빡 잊고 왔다”하면서 즉시 가버리더라. 천간天干은 시작이고 나가고 오전이다. 지지地支는 끝이고 들어오고 오후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인수는 들어오는 것이고 상식은 나가는 것이다. 기축일己丑 유시酉時인 경우 사巳운이 오면 화생토火生土로 원수가 은인으로 변한다. 이를 인수 변 상식이라 한다. 식食은 아이들이니까 어머니가 젊어진다. 다른 말로 상하上下가 바뀌었으니 나를 생생해서 들어오는 인수는 선생인데 상식인 제자로 변했으니 선생을 가르치더라. 즉 기토己土내가 사화巳火선생을 가르치더라. 나를 생하는 인수는 기쁨이며 내가 생하는 상식은 슬픔이다. 여자는 친정 다녀오거나 이사하면 잉태하게 된다. 상식이 나쁘게 연결되면 자식이 속 썩인다. 기토는 하나인데 사유巳酉로 크니 자식에게 썩썩달썩썩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듯 일련의 요즘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경우처럼 고로 인수 변 상식은 희비쌍곡喜悲雙曲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시작할 준비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8
			5		3
6		4		8	
			3	4	
	4		1	9	
3			6	7	
			2		3
	8		7		
	3				

9					8
2		9	7		5
			1		
			3		7
6		8		4	3
	4		7		
			2		
5		7	3		2
	2				7

정답

6	9	8	1	9	7	2	8	1
7	9	2	8	6	1	1	8	9
1	1	8	8	2	9	6	9	7
8	7	6	2	1	9	9	1	8
8	2	9	6	9	1	1	7	8
1	1	9	7	8	9	6	2	
9	6	1	1	8	8	7	2	9
9	8	7	9	1	2	8	1	6
2	8	1	9	7	6	8	9	1

1	9	9	1	6	7	8	2	8
2	7	8	8	9	1	1	6	9
6	1	8	8	2	9	1	9	7
8	9	1	2	1	9	6	7	8
8	2	7	6	9	1	8	1	9
9	1	6	7	8	8	2	9	1
7	6	2	9	1	8	9	8	1
9	8	9	1	8	6	7	1	2
1	8	1	9	7	2	9	8	6

과·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샘플하우스 오픈

제주도 최고급 모던 하우스 - 안트레힐

사명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드라마 '우리들에 블루스' 촬영장 인근



| 문의방법 |

- 문자를 주시면 실 동영상, 사진진과 특징점을 보내드립니다.
- 현장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보내 주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10-6230-1828

함께 갈등없이 행복하게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 건축주 올림

가격

17억~20억

대지 약 190평

건평 약 77평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68번지 안트레힐

손명오가 찾던 와인은?… 칠레 프리미엄 대명사 ‘알마비바’



안 상 미 기자

Why, wine 189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 와인

“폼..마디?’ 뭐야, X. ‘사우...비’ X발, 읽지도 못하겠네. 뭐가 제일 비싼거야?싼 거 먹으면 XX 역올한테.”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1에서 하도영의 ‘100만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법’이 화자됐다면 시즌2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손명오의 와인 이름 읽기가 압권이었다.

손명오는 문동은에게 지옥을 안겨준 가해자 중 한 명이다. 다른 가해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금수저들에게 기생하는 흙수저 가해자다.

금수저들을 협박해 한 몫 단단히 챙길 공리를 하면서 자기가 모시던 전재준의 와인셀러도 탐하지만 잘 모르며 골라마시기도 어려운게 바로 와인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손명오가 폼마디라고 읽은 전재준의 와인 첫번째는 포마르(Pommard)다. 프랑스어는



‘더 글로리 시즌2’ 화면 캡처

마지막 자음은 보통 발음하지 않다보니 그렇다.

프랑스 부르그뉴 와인으로 포마르는 와인이 생산된 마을 이름이다. 생산자는 루이자도, 뽀마르 마을에서도 클로 드 라 꼬마렌이라는 포도밭에서 자란 피노누아 품종 100%로 만들었다. 그랑 크뤼가 아닌 프리미엄 크뤼급으로 10만원대.

‘사우비’는 포도 품종 ‘Sauvignon’을 잘못 읽은 것. 와인에 따라 라벨에 품종이름이 가장 크게 써있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그나마 사우비는 철자 소리대로 읽었지만 ‘gnon’은 그렇게라도 하기 어려웠다. 사우비는 레

드와인에 쓰이는 카베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과 화이트와인을 만드는 소비뇽 블랑(Sauvignon Blanc)이 있지만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전재준이 시즌1에서도 그렇고 마시는 모든 와인이었으니 카베네 소비뇽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준의 마지막 와인은 칠레 와인 알마비바다. 손명오가 와인병을 꺼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자만 정체를 알 수 없어 한숨만 쉬고 내려놓은 그 와인이다.

알마비바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유명한 와인이다. 샤토 무통 로칠드를 만드는 프랑스 와인명가 바론 필립 드

로칠드와 칠레 최대 와이너리인 콘차이토로가 손을 잡아 보르도 스타일로 만든 와인이다. 1998년 첫 출시와 함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30만원대의 비싼 가격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있는 와인이다.

손명오가 찾던 가장 비싼 와인은 알마비바인 셈.

그러나 손명오의 선택은 답답한 긴 한숨과 함께 ‘와인은 포기’였다. “그래, 모를 때는 안전빵이지.” 그나마 알고 있던 비싼 위스키 로얄샬루트는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무기가 되었다. 그립감이 덜 좋은 와인을 택했다면 드라마의 방향이 달라졌으려나.

시즌1과 2를 총체적으로 보면 전재준은 와인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와 품종, 그리고 가격까지 개의치 않는 개방적인 와인애호가다.

금수저 화가 이사라의 와인 취향은 샴페인. 페리에 주에 벨레포크다. 마시는 장면도 없이 한쪽 구석 탁자 위에 올려진 와인병만으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와인병에 화려하게 그려진 아네모네 꽃 디자인 덕분이다. 프랑스 샹파뉴에서 샤르도네 50%에 피노누아와 피노귀니에 등을 섞어 만들었다.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꽃향에 생기있는 산미와 부드러운 기포로 음식과 함께 마시기도 좋은 와인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비움’으로 채워지는 삶의 미학

온라인 중고 장터를 구경하다 보면 ‘대체 저걸 누가 사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최근에는 브릭 수천톤을 매물로 내놓은 판매자를 봤다. 다행히 킬로그램 단위로 팔고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긴 할 것 같아 보였다.(한꺼번에 팔면 안 팔릴 게 분명했을 양이긴 했다.) 판매자는 브릭을 좋아해 모으다가 양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스스로의 우둔함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엇그제 약 10개월 전 편당으로 구매한 브릭 세트 4개가 택배로 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딱 10초 기뻐했다. 그 뒤엔 한숨과 걱정뿐이었다. 거대한 상자들을 보면서 “아... 이 많은 걸 또 어디에 넣어 두어야 하나...”라고 한탄하다 브릭에 미친 건 저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됐다.

이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하나 있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다. 어느 날 법정은 지인으로 부터 난초 두 분을 분양받는다. 이후 스님의 삶은 달라졌다. 난초를 잘 키우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해다 읽고, 식물의 건강을 위해 비료를 주고, 여름에는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고, 겨울에는 다소 춥더라도 실내 온도를 낮춰 난초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법정은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자조한다.

화창한 여름날, 스님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무소유

법정 지음/범우사

봉선사로 향한다. 그러다 문득 난초를 뜰에 내놓은 게 생각난 법정은 찬란한 햇빛을 원망스러워한다. 별이 뜨거워 축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스님은 그제야 자신이 난초에 너무 집착해 마음이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놀러 온 친구에게 난초를 안겨준 스님은 날아갈 듯 훌가분한 해방감을 만끽한다.

법정은 “소유의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번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라고 말한다. 159쪽. 8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나는 신이다

나강평 지음/투니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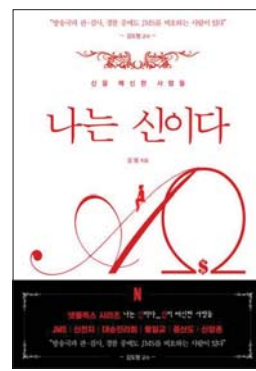
누군가가 밖에서 길을 물어보면 화가 난다. 목적지를 찾는 척하며 신상을 캐묻는 사이비 신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사이비가 판을 치게 됐을까.

책은 국내 사이비 종교의 뿌리를 파헤친다. 저자는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어느 라인에 교적을 두고 배우다가 독립 후 개업했는지를 낱낱이 까발린다.

변질된 기독교 문화와 신비주의가 대한민국의 압적인 존재로 급부상한 배경을 설명하는 책.

216쪽. 1만5000원.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패트리샤 로버츠-밀러 지음/김선 옮김/힐데와스피

선동은 우리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희생양 삼는 담론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선동이 있었다. 선동의 수사학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현실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우리와 그들로 단순화시키기 때문이다.

선동가는 우리가 맞고 저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저자는 선동가를 몰아내는 일은 또다른 선동가를 만드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선동가를 허용하는 우리만의 선동 문화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책은 선동을 구별하고 이에 맞설 방법을 제시한다. 144쪽. 1만4000원.



플레이밍 사회

이토 마사아키 지음/유대선 옮김/북바이북

플레이밍 현상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비난, 비방 등의 글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책은 관심 받고 싶은 마음, 개인 사람이라는 의식, 소수자를 도우려는 마음 등 다양한 욕망과 갈등이 모여 플레이밍 사회를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플레이밍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충실하게 비추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설명하며 이 현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다룬다.

플레이밍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책.

220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동연 “22일간 도청 압수수색,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사진 뉴시스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 출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측 “롯데 불법 자문 혐의 부인...납득 안 돼” /사진 뉴시스

▲ 범죄는 감고 수익금 인출 도와주고... 뇌물 받은 경찰, 재판형

▲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 “원하는 배상” 받겠다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 장애인 차별 소송 5년 만에 재개

아파트의 미학(美學)

안산 푸르지오브리파크



단지 내 '패밀리가든'.

사계절 피는 꽃들 보며 우리집 정원에서 '리프레쉬'



단지 내 조경.

안산역 1번 출구서 도보 약 15분
남향 위주로 배치 채광·통풍·조망 ↑
입주자 보행 편의 위해 주차장 지하화

단지 중앙엔 잔디광장 등 '그린필드'
리조트 급 조경과 '수변공원' 조성도
안산의 대표적인 야경 랜드마크 우뚝



단지 내에 마련된 '수변공원'.



'그린필드'에 설치된 휴식공간.

/김대환 기자

최근 찾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이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원곡·안산서 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안산 시민공원, 관산공원, 화랑유원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10개동, 총 171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49㎡ ▲59㎡ ▲72㎡ ▲84㎡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푸르지오(PRUGIO)'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새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해 차 없는 지상공원이 눈에 띄었다.

단지에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미



단지 내 조경 모습.

세면지 저감 시스템인 '5ZCS(Five Zones Clean Air System)'가 도입됐다.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집안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구역을 5개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차단·관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통풍·조망을 극대화했고, 각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조경 공간을 최대로 확보했다"면서 "빛나는 공원이라는 뜻의 펠레임에 걸맞도록 '경험하는 가치'와 '통합된 하나의 자연풍경'이란 컨셉트를 반영해 설계한 단지는 안산의 대표적인 야경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을 없앤 지상층에는 '패밀리가든', '선큰가든', '라운지가든' 등 총 3가지의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패밀리가든에는 미러폰드, 그리너리하우스, 미술 장식품, 조형열주가 함께 설치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단지 중앙에는 잔디광장과 함께 수목, 산책로로 구성된 '그린필드'가 조성됐다. 산책로를 따라서 계절 초화류를 심어 사계절을 느낄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린필드 옆에는 '돌과 물의 풍경'이라는 컨셉의 '수변공원'이 조성됐다. 경사진 암벽 연출을 통해 푸르지오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부여된 수변공원에는 특화 조명 시설이 설치돼 고급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동산과 코끼리, 오두막, 토끼 등 여러 주제로 조성된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의 배려가 엿보였다. 토끼 테마 놀이터 앞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ROUNGE) 내에 피트니스 클럽, GX룸, 골프클럽, 독서실, 푸른도서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됐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日公明당 대표 “한일회담서 정용 해법 방향성 확인해야” /사진 뉴시스
▲ S&P·피치, 美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신용등급 강등

▲ 중국 해경선, 센카쿠 일본영해 침범… “조업 어선 뒤쫓아”
▲ “한일지사회, 11월초 日서 개최 추진…6년 만” NHK



▲ “대면 근무 성과가 더 높다”… 메타, 재택근무 축소 시사
▲ 미래, 드론 추락에 핫라인 가동… 합참 통화도 예정 /사진 뉴시스



[라이프]
호텔업계
봄 패키지 상품
붓물
너

metro®

Life

[아파트의 미학]
사계절 피는 꽃 보며
우리집 정원서
리프레쉬
L7



비타민에 달콤·시원함 더해 경쾌하게 여는 상쾌한 하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C~.”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로나민C CM송.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데자와 등 내로라하는 빅브랜드를 생산하는 동아오츠카가 심혈을 기울여 2015년 출시한 오로나민C는 초반부터 드링크시장의 양대 경쟁구도를 흔드는가 싶더니, 모델 전현무를 내세운 ‘깨방정’ TV광고와 SNS 마케팅으로 네티즌들을 사로잡았다.



메가하이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출시와 동시에 인기 한몸에

오로나민C는 출시 당해 누적매출만 100억원을 돌파했다. 식품업계 통상 출시 초년 연매출 50억 이상이면 스타상품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볼 때 오로나민C의 첫 성적은 가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오로나민C는 출시 초반부터 대대적인 시음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탄산 드링크의 맛을 길들이는데 전력투구하는 동시에, 방송과 SNS에서는 전현무를 내세운 CF광고가 호응을 얻으면서 일명 ‘깨방정’ 춤으로 전국민을 들썩이게 했다.

◆건강한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C는 레몬 11개에 준하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2, B3, B6, 필수아미노산 3종류를 함유하고 있어 하루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 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벌꿀과 탄산수가 들어 있어 부드러운 상쾌함을 제공해 건강하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탄산 드링크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 도입된 맥시캡(MAXI-CAP)이다. 맥시캡은 지렛대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손잡이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한 번에 분리되는 원터치캡이다. 기존 뚜껑이 돌려 따는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 남녀노소가 안전하고 쉽게 개봉할 수 있다. 탄산의 상쾌한 소리를 듣는 것도 묘미다.

울룩볼룩한 다이아몬드 커

종합비타민에 벌꿀·탄산 함유 음료
2015년 출시 당해 누적매출 100억 돌파

맥시캡 방식으로 편리함에 재미까지
울룩볼룩 커팅으로 영양소 파괴 방지

e스포츠 시장 진출, 대세 모델 발탁 등
상쾌한 이미지로 MZ세대 적극 공략

팅이 새겨진 이유는 비타민B2부터 비타민 C까지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빛(자외선)에 약하거나 빛에 의해 파괴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손으로 잡고 마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안해 낸 방법이다.

◆MZ세대와 함께하는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는 업계 최초로 브랜드 팬클럽 ‘오로나민C불단’ 창설했다. ‘오로나민C불단’은 오로나민C 특유의 감성을 좋아하고 패러디하는 열혈 소비자들을 일컫는 이름으로, 흔히 연예계에서만 존재하던 팬덤 문화가 식음료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더했다.

실제 오로나민C는 론칭 후 네티즌을 통해 수많은 패러디 콘텐츠가 양산됐다. 동아오츠카는 이에 창단식을 진행하며 온라인상에 숨어있던 열혈 팬들을 한자리에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브랜드를 함께 키웠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오로나민C Night Out’ 팝업 체험존을 진행하기도 했다. 팝업 체험존에서는 오로나민C의 멀티비타민 속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임, 포토부스, 시음행사 등은 물론 브랜드 모델 ‘리치엔나’ 박세리 팬사인회, 하하, 덕평스 등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오로나민C 팝업 체험존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와 즐거운 공연이 마련돼 흥대를 찾은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편, 비타민 드링크 최초로 e스포츠 시장에 진출한 오로나민C는 지난 2020년부터 오로나민C 하스스톤 히어로즈 챔피언십(OH HC)을 개최하며 e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유명 BJ 이상호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e스포츠 대회 ‘오로나민C그니처 장인전’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MZ세대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

최근 동아오츠카는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의 디지털 광고 모델로 배우 김아영을 발탁했다. 김아영은 최근 쿠팡플레이의 코미디프로그램 ‘S NL 코리아 시즌3’의 인기 코너 중 하나인 ‘MZ오피스’에 출연하며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애칭을 얻은 바 있다. 오로나민C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앞으로도 2030세대와 함께 즐겁게 소통한다는 취지다.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브랜드매니저 김아련 과장은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 만이 가지는 특유의 유쾌함은 제품을 사랑해주신 고객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오로나민C가 생기 넘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오래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로나민C전현무 광고 영상과 ‘맑은 눈의 광인’ 배우 김아영 신규광고영상.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팝업 체험존.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클린스만 오른팔’ 헤어초크 “유럽서 뛰는 선수들 전담”
▲나폴리의 ‘벽’ 김민재…첫 시즌에 리그·챔스 다 잡는다 /사진 뉴시스

▲또 한 번 ‘아시아 최초’로…손흥민, EPL 통산 100호 골 정조준
▲‘우승후보’ 도미니카, WBC 1R 탈락 수모…베네수엘라 8강행



▲멕시코, 캐나다 대파…14년 만에 WB C 8강 진출
▲키움 이정후, WBC 귀국 이틀 만에 KBO 시범경기 선발 출장 /사진 뉴시스